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겨울 화단의 붉은 보석, 피라칸타

한겨울 남쪽 화단에서는 탐스러운 열매를 매단 나무들이 눈에 띈다. 먼나무와 호랑가시나무, 아왜나무 그리고 피라칸타. 이들 열매는 공통적으로 붉다. 물론 붉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붉은빛을 띠는 것은 아니다. 피라칸타의 열매만 해도 주황빛을 머금은 다홍색에 가깝다. 우리는 피라칸타를 쉽게 만날 수 있다. 도로 옆 가로수, 학교와 관공서의 화단, 수목원 그리고 절에도 이들은 심긴다. 게다가 먼나무나 아왜나무보다 수고가 낮아 눈에 더 잘 띄어 수박에 없다. 물론 이쯤에서 유추할 수 있듯 피라칸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고 도입되어 심어지는 재배식물이다. 온대성이기에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만 볼 수 있어, 내가 사는 경기도에서 이들은 온실 안에 식재된 모습이나 분화 형태로 살아간다. 피라칸타는 한 종의 식물이 아닌 장미과 피라칸타속 식물을 총칭한다. 이 속에 속한 6종 정도가 유럽 남쪽에서 중국 서남부에 걸쳐 분포하며,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화단의 그 피라칸타는 앙구스티폴리아(angustifolia)종이다. 나는 지난해 겨울 안도수목원에서 피라칸타를 관찰해 그림 그렸다. 한겨울 모습이 대표 이미지인 식물은 많지 않는데, 피라칸타만큼은 붉은 열매가 무리악은 1월 모습을 도화지 가운데에 기록해야 했다. 그런데 멀리서 사진을 찍고 열매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지를 만지작거리다 순간 가지의 뾰족한 가시에 찔리고

말았다. 붉은 열매에 집중하느라 가지에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한겨울 오랫동안 밖에 있던 터라 건조한 손에 닿은 가시의 촉감은 초여름 어느 장미 가시에 찔렸을 때보다 훨씬 따갑게 느껴졌다. 피라칸타 속명은 그리스어 불(πυρ)과 가시(akanthos)의 합성어에서 유래하며, 빨간 열매를 매달고 가지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영어 이름 또한 파이어손(firethorn)이다. 중국명이자 생약명도 화극, 작엽화극인데 이 또한 좁은 잎의 붉은 가시나무라는 의미이므로, 동서양에서 피라칸타를 보고 떠올리는 이미지가 동일한 셈이다. 겨울 붉은 열매가 맺힌 순간의 피라칸타도 아름답지만 초여름에 핀 흰 꽃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월 즈음 흰 꽃이 무리 지어 피며 꽃받침과 꽃잎 모두 다섯 장이다. 꽃 주변에는 늘 벌들이 많이 꼬이는데 아마도 꿀벌이 이들 수분을 도와주는 듯하다. 시간이 지나 꽃이 지고 날이 서늘해지는 초가를 즈음이 되면 꽃이 진 자리에는 연두색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 가을 동안 열매는 빨갈색 익어 겨울 내내 가지에 매달려 있다. 피라칸타는 16세기경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된 화훼식물이다. 이들은 온대성 식물임에도 추위에 꽤 강한 편이고 재배가 까다롭지 않다. 충분한 햇빛과 물만 제공하면 일 년 내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워낸다. 게다가 빨리 자란다. 위로도 잘 자라지만 옆으로도

잘 뻗어나가기 때문에 정원에 한 번 심어두면 관상식물로서의 존재감을 충분히 내보인다. 우리나라에서 만나지는 피라칸타는 대부분 붉은색이지만 노란색과 흰색 열매도 있다. 피라칸타는 태생이 까다롭지 않고 무던한 식물이다.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력이 좋은 식물. 이것이 피라칸타가 세계로 널리 뻗어나갈 수 있던 비결이었다. 다만 이들 열매가 새에게만은 별로 인기가 없는 듯하다. 겨울에 붉은 열매를 매단 나무들을 관찰하다 보면 열매를 먹기 위해 나무 주변을 맴도는 새들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데 피라칸타를 관찰할 때만큼은 새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 그 까닭을 수소문한 바, 새들은 경쟁적으로 맛있는 열매를 더 빨리 먹기 때문에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는 유독 우리 눈에서 빨리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피라칸타는 새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어, 다른 나무 열매들을 다 먹고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찌르레기와 지빠귀가 피라칸타 열매를 찾았다는 것이다. 피라칸타가 늦은 겨울까지 오랫동안 빨간 열매를 매달고 있는 것은 동물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겨우내 탐스런 열매를 매다는 아름다운 식물로 여겨져 인간 곁에 심어지는 셈이다. 이러한 사실을 떠올리면 자연에는 완전한 실패나 좌절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왠지 내게도 담대하게 눈앞의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식물 세밀화가>

社說

광주 공항 무안 이전 원칙 흔들려선 안돼

광주·전남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이 새판짜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무안으로의 이전을 원칙에서 재검토 하고 차선책인 '플랜 B' 가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강 시장은 지난 5일 "무안공항이 언제 다시 문을 열지도 불확실하고, 연다고 하더라도 광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며 "원정 재검토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 플랜 B 가동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가 끝나는 15일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의 발언 배경에는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을 논의할 범정부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12·3 비상계엄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공항 이전 논의가 무기한 연기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오는 10월까지 무안공항 폐쇄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여행업계를 살리기 위해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띄워달라는 요구가 빚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강 시장이 플랜 B 가동을 들고 나온 것은 고육지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통합 이전이란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수년 동안 공들여 중지를 모은 원칙을 바꾼다면 행정의 신뢰 상실은 물론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무안공항의 안전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지역 관광업계와 정치권 등의 요구대로 무안공항이 다시 개항할 때까지 광주공항에 한시적으로 국제선 운항을 허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이전에 무작정 반대만 해 온 무안군도 차체에 광주·전남 상생이란 큰 틀에서 공항 문제 해법에 동참하길 바란다.

5·18 민주광장 극우집회 불허 당연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유투버와 단체들에게 광주 5·18민주광장 집회를 허용해서는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엇그제 광주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위한 극우 유투버의 5·18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총들을 유발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집회를 강행하는 극우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극우 유투버 안정권, 일타강사 전한길씨 등의 5·18민주광장 집회 신청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선언이다. 실제 광주시는 안씨가 최근 5·18민주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문의했으나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근거로 승인하지 않았으며, 보수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집회 문의도 거절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는 광주 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5일 금

남로에서 유투버 전한길, 황교안 전 총리 등 1000여명이 참석하는 기도회 등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이들의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다.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은 1980년 계엄군에 맞서 저항하던 시민들이 산화한 장소다. 이곳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에 동조하는 극우세력이 집회를 여는 것은 5·18 영령을 모욕하고 광주시민에 또다른 상처를 주는 가해행위다. 비록 5·18민주광장이 열린 공간이라고 해도 반민주, 극우세력이 발발할 곳엔 결코 아니다. 극우세력은 굳이 집회를 강행하려면 5·18민주광장에서 벗어나 제3의 장소로 옮기면 될 일이다. 광주시는 극우세력의 5·18민주광장 집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5·18 범패 발원 등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칼럼

영유아 겨울 호흡기 감염병 '쿼드데믹' 우려



양무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겨울철 독감을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영유아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많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 '쿼드데믹(네 가지 감염병의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52주차(12월 22-28일) 독감 환자는 1000명 중 73.9명으로, 2016년 86.2명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이는 51주차(31.3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등 다양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은 나이가 어릴수록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감기와 증상이 유사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신생아나 영유아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이유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형, B형)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고열과 인후통,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 증상과 기침, 가래, 콧물 등이 동반된다. 특히 소아의 경우 구토와 설사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신 증상은 3-4일 내 호전되지만, 기침과 인후통은 해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1세 미만 영아의 세기관지염과 폐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출생 후 2년 이내 거의 모든 어린이가 감염을 경험하며, 이 중 20-30%는 세기관지염과 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콧물, 기침, 발열, 수유량 감소, 빠른 호흡, 쌉쌉거림 등이 있다. 최근 중국 등지에서 확산 중인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는 주로 0-6세 영유아에게 발생한다. 감기와 유사한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

행될 수 있다. 호흡기 감염병은 전파력이 높은 만큼 증상이 발생하면 주변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는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백신은 유행 중인 바이러스와 유사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RSV와 HMPV의 경우 특별한 치료법은 없으나 대부분 1-2주 내 호전된다. 그러나 영유아의 경우 탈수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해열제와 수액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백신은 감염 예방뿐만 아니라 중증 및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접종이 중요하다. RSV와 HMPV는 감염자 분비물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므로,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온 국민들이 건강수칙을 잘 지켜 건강을 지켰던 것처럼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도 예방법만 준수하면 큰 도움이 된다. 먼저 증상이 있을 경우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철저히 손을 씻어야 한다. 기침 예절을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예방접수는 필수이다. 실내환기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기고

광주, 양자컴퓨팅으로 AI 선도해야



류갑상 동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광주시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광주 첨단기술3지구에 위치한 인공지능산업클러스터진흥원(AIICA)과 국가AI데이터센터 등의 사업을 통해 AI 산업 융합단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을 성장시키며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제연합(UN)은 2025년을 '세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선포했다. 전 세계 국가와 도시는 양자 과학이 제공하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중첩 및 얽힘과 같은 양자 역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컴퓨팅은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를 통해 양자 컴퓨터는 기존 시스템이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중첩을 사용하면 양자 컴퓨터가 여러 솔루션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

다. 얽힘은 고도로 조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양자 비트를 연결한다. 이러한 고유한 기능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양자컴퓨팅은 전례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광주시의 경우 교통 시스템의 실시간 최적화, 수많은 변수를 고려한 스마트한 도시 계획, 고도화된 인프라 유지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양자컴퓨팅은 환경 모니터링, 의료, 에너지 사용과 같은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해 기존 기술이 달성할 수 없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양자컴퓨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는 광주의 AI-그린빌딩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2045년까지 도시를 탄소 중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자 알고리즘은 에너지 사용 패턴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재생 에너지 그리드를 최적화할 수 있다. 또한 날씨 패턴을 시뮬레이션하고 자원 할당을 최적화하여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광주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광주는 양자컴퓨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양자AI컴퓨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강력한 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첨단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GIST(광주과학기술원)와 같은 대학과 협력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 셋째, IBM, Google과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 및 스타트업과 협력해 혁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 기업 친화 정책 등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다. 양자컴퓨팅을 AI 전략과 통합함으로써 광주는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도시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은 복잡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의 관점에서 도시의 글로벌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양자컴퓨팅과 AI의 결합은 단순한 진보 그 이상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의미한다. 광주는 더욱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길에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에 광주의 잠재력을 확인시켜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의 결합 전략은 더 밝은 미래와 혁신을 향한 광주의 글로벌 선언이다. 미래 지향적인 전략을 통해 광주는 혁신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지구촌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無等鼓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7기 출범과 동시에 중국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 역시 보복 카드를 내밀었다. 무역만이 아니라 첨단과학기술, 전략산업, 천연자원 등을 둘러싼 G2의 각축전은 세계 경제 판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시 미·중의 틈바구니 속에서 첨단기술력, 상품 제조 능력, 가격 경쟁력 등을 더 향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일론 머스크 등이 설립한 오픈AI가 2023년 5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내놓은 지 2년도 안 된 시점이다. 수백억 달러가 든 챗GPT에 비해 딥시크는 600만 달러 내외의 개발비가 들었다고 한다. 미국이 자본·인력·시간을 대거 투입해 고급 기술을 내놓으면, 중국은 그것을 모방해 훨씬 적은 노력으로 비슷한 상품을 내놓는 방식은 여전하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중국이 아직 미국보다 한 수 아래인 것은 분명한 셈이다. 미·중은 정부 재정만이 아니라 민간 투자를 통해 AI, 양자컴퓨팅, 바이오, 우주

공학 등에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정부가 마중물을 대고, 경제성이 있는 기술이 시장에 등장하면 금융기관, 기업, 개인투자자 등 민간의 투자를 받아 고도화, 상품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재정이 취약한 우리나라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딱 두 가지다. 인재를 꾸준히 양성하고, 민간 자본의 집중·지속 투자를 통해 혁신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민간 자본이 부동산에만 쏠려 있다는 점이다. 개인은 너도나도 '영끌'을 해 새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저축을 할 수 없는 처지고, 기업들은 비즈니스가 아닌 땅투기로 더 높은 수익을 보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행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은 76%와 24%이다. 미국(34%, 66%), 일본(37%, 63%)과 비교해 정반대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징세가 우리나라 첨단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의미다. /윤석경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